

福 주는 황금돼지섬에 가면 행복한 한해 도래!



‘돼지의 해’ 제2전성기 맞은 마산 돌섬

경남

마산만 앞바다에 있는 돌(돼지의 옛말)섬은 1982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해상유원지였다. 바이킹, 하늘자전거, 동물원 등 다양한 놀이 기구가 있었고, 1년에 10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나 지금은 조각작품, 산책로 등이 마련된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변했다.

돼지 형상을 하고 있는 돌섬은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을 맞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설날 당일에는 1000여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았으며,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6일 1884명이 돌섬을 방문했다. 돌섬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년 1월의 가볼만한 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1982년 국내 첫 해상유원지... 조각 공원·산책길 조성
해발 52.8m 최치원이 화살로 괴수 물리친 아담한 섬
바지락·홍합·굴 캐기 바다 체험장...동백·매화나무길
19일 대보름 맞이 강강술래...순금돼지 등 경품 푸짐



1982년에 조성된 출렁다리.

지난 7일 마산항 연안크루즈종합여객터미널에서 돌섬으로 향하는 유람선을 탔다. 돌섬은 마산항에서 1.5km 떨어져 있다. 유람선에 오르자마자 뒷편에는 갈매기들이 날개 짓을 하며 반긴다. 갈매기들의 날개 짓은 돌섬에 도착하는 10분 남짓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다. 갈매기들의 향연은 짝짓기를 하기 전인 4월 정도까지 볼 수 있다.

돌섬 선착장에 도착하면 복을 드리는 황금돼지섬 돌섬 문을 지나게 되고 돼지 모양 포토존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포토존을 한복을 입은 돼지 두 마리가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 포토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포토존 오른쪽에는 황금돼지상이 있다. 돼지 모양 포토존에 이어 이곳에서도 대다수가 기념사진을 찍는 인기 장소이다. 이 돼지상은 돌섬 해상유원지 개장 당시부터 있었다. 원래 황금색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 황금돼지상으로 탈바꿈했다. 이 상은 돌섬의 설화에서 착안했으며, 이 돼지를 품에 안으면 부자가 되

고 돼지코를 만지면 복이 두 배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돌섬은 걸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황금돼지상 오른쪽으로 향하면 월영대를 노래한 10인의 시비가 나온다. 이 시비들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 세계를 흠모해 마산합포구의 월영대를 노래한 고려, 조선시대 대학자 10인의 시를 선정해 새긴 것들이다. 최치원 선생은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치고 전 합포와 월영대에서 학문 활동을 왕성히 했다고 한다. 수많은 학자들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을 흠모하며 월영대를 찾아왔고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 이어 전망대가 두 곳 있는 파도소리 산책길과 조각 감상 길이 이어진다. 파도소리 산책길 1전망대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두산중공업이 보이며, 2전망대에서는 무학산과 수출자유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파도소리가 들리는 파도소리 산책길에서는 맑아진 마산만이 확연히 드러난다. 맑은 바다를 입증하듯 바다체험장에서 바지락과 홍합, 굴 등을 캐기도 한다. 체험 가능 시간은 돌섬해피랜드

홈페이지(<http://dotseom.kr/>)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레길 한 편에는 소원을 빌 수 있는 돌부처가 있다. 이 곳은 최치원이 화살로 요괴를 물리친 장소다. 돌섬에 해상유원지가 만들어지기 전 섬에 살던 주민들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기우제를 지낸 곳의 샘은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다.

해양레포츠센터 옆에는 북극곰 동상도 보인다. 자연스레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국내 유일의 북극곰 통키가 떠오른다. 통키는 1995년 돌섬 해상유원지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 에버랜드로 이주했다. 통키는 북극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의 영국 야생공원으로 이주를 앞두고 고향으로 갑자기 숨졌다.

돌레길 막바지에는 출렁다리가 있다. 빼적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1980년대 해상유원지 시절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그 출렁다리를 만들 당시를 감안한다면 색다른 시도였을 것이다.

해발 52.8m 돌섬 정상은 돌섬 돌레길 곳곳

에서 오를 수 있다. 선착장 옆 잔디광장(6000㎡)에서는 황금돼지길 420m를 걸으면 정상에 닿는다. 황금돼지길 주변에는 동백나무길(300m), 매화나무길(200m)이 있으며, 정상 부근에는 최치원화살길(150m)도 조성돼 있다. 정상에는 노산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가 있다. 국내 시 10편이 있는 숲속산책길로 내려오면 플라타너스가 작은 소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잔디광장 옆 섬터에서는 돌섬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휴식공간으로 변한 돌섬의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 11만2000㎡ 규모의 돌섬을 둘러보기엔 충분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외도나 장사도 같은 해상국립공원과 달리 돌섬은 마지막 배 운항 시간까지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다. 특히 겨울이 아닌 봄부터 가을까지 세 계절 동안 수많은 꽃들이 돌섬을 장식하며, 벚꽃과 가을 단풍은 유명 관광지 못지않게 아름답다. 돌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늘자전거 등 몇몇 추억의 놀이시설의 부활, 돌섬에 있는 옛 파출소·커피숍·세미나실의 공간 활용 방안 등이 뒷받침된다면 창원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돌섬의 제2의 전성기는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오는 19일 오후 2시 돌섬에서는 정월대보름 맞이 2019명과 함께하는 돌섬강강술래가 진행된다. 상품으로 순금황금돼지 1마리, 압력밥솥, 청소기 등 경품도 준비돼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경남신문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사진= 경남신문 상순건 기자 mkseong@<취재협조> (주)돌섬해피랜드

가락국왕 총애 받는 후궁, 돼지로 변한 섬

◆돌섬의 전설= 옛가락국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미희가 어느날 갑자기 궁을 떠났다. 신하들이 수소문 끝에 환궁을 재촉하자 돌섬 황금돼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졌다. 그후 황금돼지가 맹수로 변해 백성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고, 임금이 군병들을 동원해 황금돼지를 쫓아 포위하자 한줄기 빛이 되어 섬으로 사라졌다. 섬은 돼지 누운 모습으로 변해 그때부터 돌섬으로 불리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돌섬에서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가 들려 최치원 선생이 무학산에서 활을 쏘자 소리가 잦아들었다고 한다.

◆돌섬에 가려면= 돌섬해피랜드에서 운행하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왕복도선료는 성인 기준 8000원, 중고생·국가유공자·경로·장애인은 7000원, 24개월 이상 초등학생은 5000원이다. 오전 9시부터 배가 다니며 보통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관광객이 몰릴 경우 더 자주 배가 다닌다. 돌섬에서 나오는 마지막 배는 오후 6시에 출발한다.

◆찾아가는 길
▲승용차= 내비게이션에서 돌섬유람터터미널 검색.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6(신포동1가 86) ☎ 055-245-4451
▲시내버스= 마산어시장 정류소에서 내려 마산소방서 방면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이 있다.

◆주변관광지
▲저도= 돼지 모양의 저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다. 원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했지만, 2017년 3월 저도 연륙교 바닥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며 스카이워크로 거듭났다. 육지와 섬을 잇는 길이 170m, 폭 3m 다리 가운데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길이 80m, 폭 1.2m 투명 강화유리를 깔면서 바닷물 위로 고깃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저도 비치로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창원 해양드라마세트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876-2(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70)에 있다. 지난 2010년 4월 드라마 촬영 및 해양교류사 홍보 교육을 위해 조성했다. 세트장은 모두 6개 구역 총 25채의 건축물로 구성돼 있다. 가야시대의 야철장, 선착장, 저자거리, 가아종의 범선, 각종 무기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품이 갖춰져 있다.

이 밖에도 문제인 대통령이 방문한 창동예술촌(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117-2)과 마산어시장, 문신미술관(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51-1), 가고파 교보랑길 벽화마을(창원시 성호서7길 15-8번지 일원) 등도 찾을 만하다.



돌섬 산책길.



최치원이 화살로 괴수를 물리친 곳에 있는 돌부처.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韓道日報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2019 Dinner Show

박상민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룰케일 증명)

ShinYang Park Hotel
CONFERENCE HALL & FITNESS CLUB